

참고

제도개선 적용 사례 (예시)

※ 할인·할증등급 또는 보험가입경력요율 반영 전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(다른 조건은 미고려)

사례①

장기 무사고자가 경력단절 후 자동차보험 재가입

- ✓ 40대 A씨는 2009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11년 동안 무사고 안전 운전으로 2020년 당시 할인·할증등급이 22등급으로 우수하였으나, 이후 개인사정으로 4년간 경력단절 후 '24.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

▶ (종전) 11등급 적용, 보험료 82.8만원 (개선) 19등급 적용, 보험료 48.3만원
“제도개선으로 보험료 34.5만원 절감(41.7%↓)”

※ 재가입자 중 저위험 운전자 비중 약 56.3%(‘23년 기준)

사례②

다사고자가 경력단절 후 자동차보험 재가입

- ✓ 30대 B씨는 2015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이후 사고경력이 많아 2020년 당시 할인·할증등급이 7등급으로 불량하였으나, 이후 개인사정으로 4년간 경력단절 후 '24.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

▶ (종전) 기존 7등급, 보험료 111.6만원에서 재가입시 11등급, 보험료 82.8만원
→ 28.8만원 감소(경감폭 : 25.8%↓)

(개선) 기존 7등급, 보험료 111.6만원에서 재가입시 8등급, 보험료 105만원
→ 6.6만원 감소(경감폭 : 5.9%↓)

※ 재가입자 중 고위험 운전자 비중 약 15.1%(‘23년 기준)

사례③

장기렌터카 이용 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

- ✓ 20대 C씨는 사회초년생이던 3년 전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3년간 운전한 이후 '24.6월 차량을 구매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

▶ (종전) 운전경력 인정×→보험료 138.1만원 (개선) 운전경력 인정○→보험료 100만원
“제도개선으로 보험료 38.1만원 절감(27.6%↓)”